



애경산업, 부천시 지역 화합 체육대회 후원

애경산업이 지역 사회에서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열었다. 애경산업은 지난 10일 부천 성곡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26 어울림 체육대회'를 후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주최했고 인트리, 어울마루, 한부모가족센터 등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애경산업은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애경산업



하나은행, 中企 기업승계·M&A 지원

하나은행은 지난 7일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기술혁신을 돕기 위한 기업승계 및 인수합병(M&A)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품질 등으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M&A를 통한 기술혁신형 기업의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M&A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소진공, '정책소통 유공 포상'서 국무총리 표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2025년도 정책소통 유공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11일 소진공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정책소통 유공 포상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올해 소진공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정책 소통 성과를 인정받았다. /소진공

GC녹십자그룹 '목암생명과학연구소' AI신약개발 시대 선도 의지 강화

창립 42주년 기념식서 미래연구 청사진 제시

목암생명과학연구소가 바이오 신약개발의 명성을 다져온 데 이어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GC녹십자그룹은 지난 8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창립 4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신현진 목암연구소장(사진)은 도전 정신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강조했다. 목암연구소는 지난 2022년부터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에 중점을 두며 첨단 의약품 시장에 대응해 왔다. 특히 mRNA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연구를 중심으로 유전자 부문 전반에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 ◆재영솔루텍<신임(전무)>경영지원실장 허욱
- ◆서울대병원△감사 오정훈

SK이노, 에너지·사회문제 해결할 AI 솔루션 찾는다

'AI 임팩트 솔루션' 참가팀 모집
10개 팀 선발해 사업화 지원
우수팀엔 투자·TIPS 연계까지



'AI 임팩트 솔루션' 참여팀 모집 포스터.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와 사회문제를 해결할 창업팀 발굴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AI 임팩트 솔루션'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AI 임팩트 솔루션은 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와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보유한 창업팀을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SK이노베이션이 주최·후원하고 임팩트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 전문 역량을 보유한 재단법인 큐네스티가 주관한다. 단순한 아

이디어 공모를 넘어 육성, 사업화, 투자 연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발 규모는 10개 팀이다. 선정 팀에는 실증 개발비와 함께 AI 기술, 비

즈니스, 임팩트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상용화 지원, 후속 투자 연계 등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이 단계별로 제공된다. 우수 솔루션으로 선정된 팀에는 후속 사업화와 고도화를 위한 비용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2년 차에는 우수팀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발굴·육성 자금인 틱스(TIPS)와 임팩트 투자자 연계 등 추가 사업화 지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AI 포 에너지(for Energy)'와 'AI 포 소셜 이슈(AI for Social Issues)' 2개 트랙이다. AI for Energy는 에너지 접근성, 에너지 효율, 탄소 감축 등 에너지 분야 문제 해결에 기여할 AI 기반 솔루션이 대상이다. AI for Social Issues는 돌봄,

안전, 환경, 이동권, 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은 설립 3년 이내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가 포함된 팀은 우대된다. 모집 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며, AI 임팩트 솔루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AI 기술은 산업 혁신을 넘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아이디어 검증부터 상용화까지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실질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장 재생치료 연구 '아시아 최우수 초록상'

오가노이드사이언스

ISCT서 ATORM-C 연구 성과 인정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이하 '오가노이드')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국제세포유전자치료학회(ISCT) 2026 더블린 연례 학술대회에서 '아시아 최우수 초록상(Top Scoring Asia Abstract Award)'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은 ISCT 아시아 지역 집행 위원회가 아시아 제출 초록 중 학술적 완성도와 임상적 확장 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초록이 접수된 가운데 선정된 만큼, 연구의 완성도와 임상적 의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상을 받은 초록은 난치성 장 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장 오가노이드 기반 장 재생치료제 아롬-C(ATOR

M-C)의 전임상 최적화부터 초기 인체 적용 결과까지 담고 있다. ATORM-C는 환자 조직에서 유래한 성체 줄기세포 기반 대장 오가노이드를 체외에서 확장·분화시킨 뒤, 손상 부위에 직접 이식하는 재생치료 플랫폼이다. 기존 치료가 염증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ATORM-C는 손상된 점막을 실질적으로 재건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 증상 조절을 넘어 직접적인 조직 복원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별화된다.

회사측은 이번 수상은 오가노이드 치료제의 GMP 기반 제조 공정 확립, 동물모델에서의 효능 및 안전성 검증, 난치성 환자 대상 초기 임상 적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완수하며 세계 최초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상용화에 한발짝 다가갔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중소사랑나눔재단, 소외계층에 온정 전달

대전 동구 무료급식소서 진행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연합봉사단이 지난 9일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대한사회복지원을 방문해 따뜻한 한 끼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10여명의 봉사단은 무료급식소에 방문한 100여명의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해 채소와 고기를 직접 손질해 반찬을 만들고, 따뜻한 밥과 국을 식판 가득 담아 푸짐한 한 끼를 전달했다.

중기사랑나눔재단은 한 끼 나눔 봉사활동과 더불어 대한사회복지원에 1000만원 상당의 김치와 삼계탕용 닭 등의 식자재를 지원했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지난 9일 대전 동구 대한사회복지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2019년부터 시작한 중기연합봉사활동이 어느덧 78차를 맞이했다"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중기연합봉사단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에 더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파미르 실크로드서 한민족 개척정신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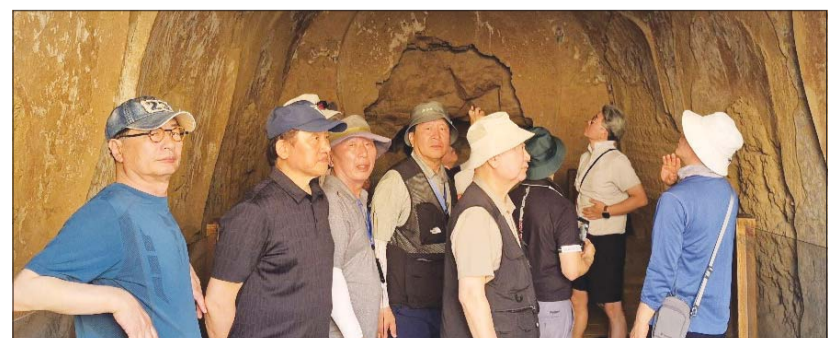
지평 인문사회연구소

6박7일 신장위구르 일대 답사
카슈가르·쿠차·투루판 등 방문

지평 인문사회연구소(대표 김석동)는 '파미르 실크로드 탐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탐방은 지난 5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탐방단은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오아시스 도시인 카슈가르와 쿠차, 투루판, 파미르고원 일대를 둘러봤다.

김석동 탐방대장은 "과거 동서양의 문물과 문화, 경제, 종교, 철학이 교류하던 옛길 역할을 한 실크로드는 서쪽으로는 이스탄불, 동쪽으로는 신라까지 이어졌다"며 "이번 탐방을 통해 한민족의 도전과 개척정신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지평인문사회연구소 회원들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산악지대 파미르고원 일대에 위치한 '파미르 실크로드'의 유적지를 둘러보고 있다.

창립 85주년 맞아 미래가치 비전 공유

한국엔컴퍼니그룹 특별전 개최

'HANKOOK 갤러리'서 혁신 조명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창립 85주년을 맞아 임직원들과 그룹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문화·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 전시와 포상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경기도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창립 85주년 기념 특별전시 'HANKOOK 갤러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

는 '우리가 그린 혁신, 우리가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임직원 전시존, 외부 작가 전시존, 비전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다. 그룹이 추구하는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치를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임직원 전시존에서는 조직문화 프로그램 '프로액티브 콘서트'를 통해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미션·비전 드로잉 작품을 선보였다. /양성운 기자 ysw@

농심 백산수, 4년 연속 세계품질 대상

몽드 셀렉션 생수 부문 최고 등급

농심은자사의 생수브랜드 백산수가 세계적 권위의 품질 평가기관인 벨기에 '몽드 셀렉션(Monde Selection)' 생수 부문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대상(Grand Gol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프, 소믈리에, 과학자 등 8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엄격한 기준을 통해 소비재 품질을 검증하는 세계적인 평가기관이다.

백산수는 올해 심사에서 '맑고 투명하며 부드러운 미네랄 생수'라는 호평을 받으며 글로벌 수준의 품질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1961년 설립된 몽드 셀렉션은 세